

# 진심어린 마음 담긴 설득으로 소중한 생명 구해

## 고창경찰서 늦깎이 35세 이상군 순경 자살기도 20대 구조

30대 중반에 입문한 늦깎이 경찰관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20대를 끈질긴 설득을 통해 무사히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112상황실에 "삼배가 임플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소속 김양진 팀장과 이상군 순경(35)은 임플 복도 창문 밖으로 상반신을 걸쳐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던 A씨의 모습을 확인한 수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 A씨의 후배는 A씨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말리고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었다.

당시 경찰학교 현장 교육 중이었던 이 순경은 신속하게 A씨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 A씨를 복도 안으로 끌어내렸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A씨와 함께 지구대로 이동했다. 이후 이 순경은 지구대 안에서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며 흥분 상태에 있던 A씨의 마음을 달래기 시작했다.

이 순경은 A씨가 가정불화로 친척 집에 얹혀살게 되면서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놓쳐 다른 사람보다 늦게 진학하는 바람에 진로 문제로 고민하던 중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0대 중반에 입문한 늦깎이 경찰관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20대를 끈질긴 설득을 통해 무사히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이 순경은 3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경찰 시험에 합격하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A씨에게 들려주며 지속해서 설득했고, 결국 A씨는 이 순경의 진심 어린 설득 끝에 마음을 풀었다. 이 순경은 아찔했던 상황을 상기하며 "A씨의 이

야기를 듣다 보니 남 일 같지 않았"면서 "진심어린 마음이 전달돼 A씨의 마음을 풀리게 돼 다행이다. A씨가 앞으로도 힘을 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남원경찰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간담회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5일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센터를 방문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청문관과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및 상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치료·의료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을 논의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방안 및 2018년 추진 계획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원경찰서에서는 피해자 보호 골든타임인 범죄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법률·경제·심리 등 다각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임상준 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피해자 중심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기자



## 무주경찰서, 유해야생동물 자율 구제단 총기안전교육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 5일 최북미출판에서 '유해야생동물 자율 구제단' 30여명을 대상으로 총기 운영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자율 구제단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동물 포획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총기안전교육은 읍주 전·후 총기 사용금지 등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민가 및 국립공원 지역 등 총기사용 금지 등 안전한 수렵활동이 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윤종섭 서장은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총기 안전수칙 및 수렵 활동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 안전한 수렵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통해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성기자



## 부안 계화면적십자봉사회, 독거노인 점심 목록봉사 나눔 펼쳐

계화면 적십자봉사회(회장 최민자)는 6일 관내 독거노인 25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목록봉사를 펼쳤다.

이날 최민자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들이 거동하기가 불편해 혼자 씻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목욕은 물론 손 발톱을 직접 깎아주고 맛있는 점심도 대접했다. 최민자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씻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목욕을 한 후 한결 밝아지고 보양하게 빛나는 어르신들 보면 함께 행복해지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따스한 정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평중계화면장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하는 시기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주민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지역사회의 많은 단체·개인들이 주민 복지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계화면 적십자봉사회는 매달 모은 자재 화기로 떡국나눔 반찬지원, 목록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부안=이복수기자

## 정읍 상교동주민센터,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상교동주민센터는 지난 5일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안전사고 예방, 건강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자리 사업이 없어서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올해 주민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 대상으로 처음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멀리 가지 않고도 일을 하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익산시 춘포면새마을부녀회 훈훈한 밀반찬 나눔 봉사 펼쳐

익산시 춘포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복자)는 6일 흠뻑어르신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50여 명에게 밀반찬 나누기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부녀회원들은 이날 밀치고추조림, 나박김치, 장조림 등 3~4종의 반찬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며, 말벗을 해드리고 인부를 묻는 등 이웃사랑의 따뜻한 관심을 보여줬다.

김복자 부녀회장은 "부녀회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작으나마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익산시는 6일 익산시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약 600여 명의 일자리 참여자와 정현을 익산시장, 소병홍 익산시의회의장, 황원 전라북도회회의장을 비롯한 익산시의회의원과 전라북도회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참여자의 권리선언과 일자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결의하는 대표자 선서, 축사, 참여자의 안전한 일자리 활동을 위한 소양교육과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 중 하나는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다"며,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립감과 고독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17년 대비 714명이 증원된 3,517명의 참여자와 32억 원이 증액된 93억 원의 예산으로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과전형의 사업을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외 14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한다.

/익산=장양원기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서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